

육아휴직 급여 인상하고 남편 출산휴가 20일로 늘린다

정부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취준생에 취업서비스 제공 초등학생도 꿈 사다리 장학금...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 ISA 전면 개편...장병내일준비자금 한도 40만→55만원

정부가 취업준비생과 니트(NEET)층에게 적시에 취업 정보·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한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고 남편의 출산휴가는 20일로 2배 확대한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꿈 사다리 장학금'의 범위를 초등학생까지 넓히고 근로 소득 통한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도 전면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41만 국가장학금 신청자, '사전동의' 시 취업 서비스 제공=먼저 정부는 취준생·니트층을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 직업 훈련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 보험 데이터베이스(DB)가 연계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약 141만명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장학금 신청 시 고용서비스 제공을 사전 동의하면 취업 정보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일하지 않거나 일할 의욕이 없는 니트족도 발굴·예방하기 위해 졸업 직후부터 고용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

준생 등에 공급하도록 하는 '개방형 기업 트레이닝'도 추진한다.

디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은 첨단 산업·융합 분야까지 포함하는 'K-디지털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개편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재취업 업종제한 폐지=이번 대책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주요 뼈대로 담겼다.

정부는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한다. 대상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또 남편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리기로 했다. 20근무일이면 약 한 달 수준이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제도를 추진하려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통합고용서비스 우대 지원 대상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같은 중분류 기업에 지원할 시에만 지원된다. 예컨대 출산 전에 의복회사에서 일했다면 출산 후에 신발회사로 재취업 시 지원받지 못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 확대=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 확대는 이번 대책의 핵심 줄기 중 하나다.

정부는 재능 있는 학생들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능력 개발 기회를 얻도록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중1~고3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히기로 했다.

대학생 대상으로는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

직업계고 교육 경쟁력도 강화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고졸자 비중을 늘리고, 일경험·취업·후(後)학습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부동산 팔고 연금계좌 납입시 세제혜택=정부는 ISA 제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다양화, 이전방식 개선 등의 'ISA 경쟁촉진 3중 세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개·신탁·임입형으로 구분되지 않은 통합형 ISA를 도입하고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을 확대한다.

연금소득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1년당 6%씩 감액 기준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다.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군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 한도·매칭 지원금은 현재 월 최대 40만원에서 내년부터 55만원으로 확대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산물 유통비 10% 절감...온라인 도매시장 5조원 규모로 키운다

농식품부, 유통구조 개선방안 2026년까지 거점 APC 100곳 구축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유통 단계를 최소화한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키울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도매시장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5~10년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법인은 공모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성과가 부진한 법인의 경우 지정 기간 중에도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안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지금도 임의로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1976년 법 제정 이후 지정 취소된 법인은 모두 6곳에 그쳤다.

도매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출하 단계에서 미리 품목과 물량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전자송품장' 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도매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가락시장 수준인 5조원 규모로 키우는 목표도 세웠다.

우선 올해 하반기 수산물 판매를 시작해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지금의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로 늘린다. 더 많은 판매자가 들어올 수 있게 가입 기준을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문턱을 낮추고 거래 부류 간 판매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도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게 농협, 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고 통합물류 기능도 확충한다.

또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2026년까지 100곳을 구축하고 APC의 성과물 취급 비중을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 등 거점 위판장 100곳을 현대화해 전국 214개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한다. 김, 전임업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 단체를 통해 계약재배에 안정적인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물류기기 시장에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하고 농협이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유통 단계별 사재기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하면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게 '농산물 매점매석 고사'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팜스테이마을서 심사분석회의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지난달 30일 광주시 북구 충효동 무등산 팜촌마을에서 '1분기 심사분석회의'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광주 유일의 농협 팜스테이마을인 '무등산 팜촌마을'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건전결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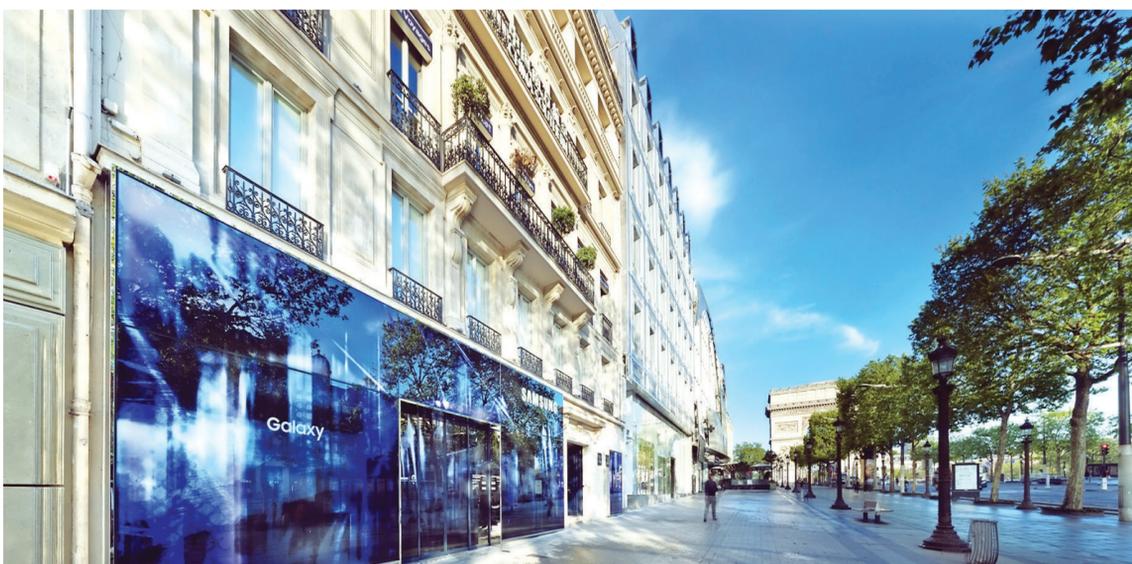
또 회의 종료 후 팜스테이마을에서 농촌문화 체험활동과 농촌마을 활력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인 '농촌 회(會)·식(食)'을 시도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아 어울림(회)을 갖고, 농촌의 맛(식)과 맛을 즐기는 도농상생 일환의 '농촌 회(會)·식(食)'을 홍보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현호 본부장은 "대내외 금융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농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농촌·행복농촌을 만드는 데 힘써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전자 프랑스 파리에 '삼성 올림픽 체험관' 오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공식 파트너 삼성전자가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삼성 올림픽 체험관'을 오픈한다. 삼성전자는 현지시간 지난달 29일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125번가에 '삼성 올림픽 체험관'을 마련하고 개관식을 진행했다. '삼성 올림픽 체험관'은 3일 정식 오픈을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사진은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125번가에 위치한 삼성 올림픽 체험관 전경. <삼성전자 제공>

"올해 출발 괜찮네"...상장사 절반 1분기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

71개사 중 36곳 10% 이상 상회

올해 1분기 실적 시즌이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실적을 발표한 국내 상장사 중 절반이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3개월 이내 실적 추정치가 있는 코스피·코스닥 기업 가운데 1분기 실적(연결 재무제표 잠정 기준)을 발표한 기업은 모두 72곳이다.

이중 매출액만 발표한 서울반도체를 제외한 71곳 가운데 51곳의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시장 전망치 평균)을 상회했다.

그중에서도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

망치)를 10% 이상 웃돈 기업은 36곳으로, 전체의 50.7%에 달했다. 기업별로 보면 한화오션이 컨센서스(146억원)의 3.6배에 달하는 529억원의 영업이익을 내 시장을 놀라게 했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호실적은 환율의 도움이 크고, 이익이 회복의 초입 단계로 절대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비율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작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화시스템(70.1%), LX하우시스(66.5%), SK이노베이션(57.4%), HD현대일렉트릭(54.7%), 효성티앤씨(51.2%)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성과를 냈다.

특히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25.5%), SK

하이닉스(55.6%)는 높아진 시장 눈높이를 채우고 고도 성장을 위한 좋은 실적을 거뒀다.

여기에 아모레퍼시픽(42.8%), LG에너지솔루션(38.2%), 포스코퓨처엠(36.3%), LG생활건강(16.6%) 등 실적 우려가 있던 업종에서도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코스피의 실적 자신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반면 HD현대중공업(-55.8%), 에스원(-18.5%), 대우건설(-17.3%), 현대모템(-17.2%), SNT모터(-14.4%), HDC현대산업개발(-13.6%) 등 20개 기업은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실적을 냈다.

조사 대상인 71개사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평균 17.6%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광주조달청 컨설팅 '공공조달 길잡이' 첫 성과

지역 기업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광주조달청(청장 김종열)은 '공공조달 길잡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을 도왔다 1일 밝혔다.

공공조달 길잡이는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을 적극 발굴해, 조달시장 진입과 조달제도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윈스톱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광주조달청은 지난 3월14일 길잡이 상담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 지역 기업인 ㈜엠아이소프트의 '원격자동점점시스템'이 최근 다수공급자

계약(MAS)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했다.

광주조달청은 이번 조달시장 진입 첫 사례를 시작으로 공공조달길잡이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업의 입장에서 중소기업들에 지속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열 광주조달청장은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관내 초·중·소기업들이 벤치마킹, 혁신제품, 조달우수제품 등의 조달시장에 진입하고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도제한계좌 이체·ATM 100만원으로 상향

앞으로 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이체·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는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한도는 인터넷뱅킹과 ATM이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이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한 은행이용자를 위해 도입된 인출·이체 한도가 제한되는 계좌다. 처음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학생이나 주부, 은퇴자 등이 주로 사용한다.

상향 한도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모든 기존 한도제한 계좌에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농협과 하나, 부산은행은 10일부터 거래

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종전과 동일하다.

금융위는 또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해 사례별로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지 은행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기로 했다.

은행은 또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동의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이용자가 실물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 한도를 종전 금융거래한도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8월 28일부터는 농·수·수산업,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에서도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 상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